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마치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고르는 것처럼 소그룹 사역을 고를 수 있다. 다락방, 셀, 구역, 속회, D12, 가정교회 등 그 이름만큼이나 종류도 많고 세미나도 많이 열린다. 그 많은 소그룹 사역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담임목사의 책임이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한번 선택하면 한동안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사역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소그룹 사역을 선택하기에 앞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형태의 소그룹이든 그 소그룹의 수준은 그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즉, 잘 준비된 소그룹 리더가 있으면, 어떠한 소그룹 사역을 선택하든 그 사역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나 준비된 소그룹 리더를 세우지 않고 무조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면, 열마 못 가 그 소그룹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즉, 소그룹 사역의 성공은 어떠한 소그룹 사역을 선택하느냐보다 어떠한 소그룹 리더를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hoto by ©고경원

최상태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과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D. Min)를 취득했다.
현재, 화평교회 담임목사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교 겸임교수로 섬기고 있다.
또한 제자훈련과 가정교회 사역으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으며,
저서로는 『21세기 신 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등이 있다.

이번 호 제자훈련 현장 이야기의 주인공인 고양 화평교회는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소그룹 리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고양 화평교회는 한국 교회에 소개된 소그룹 사역의 하나인 가정교회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는 그 세미나를 거쳐 간 목회자들로부터 소그룹 사역의 이론과 실제를 배울 수 있는 탁월한 세미나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매 회 참석인원을 목회자 100명으로 제한하여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화평교회의 소그룹 사역인 가정교회 현장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그룹 사역은 이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직접 체험하고 그 핵심 원리를 몸에 익혀야만 접목할 수 있다는 화평교회의 담임 최상태 목사의 확신 때문이다.

최 목사가 생각하는 소그룹 사역의 핵심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다. 소그룹은 소그룹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사역에 성공하려면 먼저 소그룹 리더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고, 소그룹을 이끌 리더를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소그룹을 접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끌어 갈 리더를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그룹 사역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최 목사의 확신이다.

소그룹 사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 그리고 현재 목회가 어느 한계에 부딪혀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목회자들은 이번 호 현장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상태 목사가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였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소그룹 사역의 시대라고까지 말하는 요즘, 최상태 목사는 오히려 소그룹 사역에 관심이 있다면 제자훈련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화평교회와 최상태 목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가정교회 사역의 노하우가 아닌,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목회철학이다.

제자훈련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최상태 목사가 제자훈련 목회철학에 대해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 몇 년 전, 최상태 목사는 그에게 가정교회 사역을 가르쳐 준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의 최영기 목사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그때 최영기 목사는 최상태 목사에게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 때 제자훈련 이야기는 좀 안 할 수 없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최영기 목사는 가정교회 세미나니까 그냥 가정교회 사역만 소개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최상태 목사는 그 자리에서 최영기 목사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가정교회 사역은 제자훈련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뒤로도 몇 번 최영기 목사로부터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최상태 목사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가정교회는 전적으로 제자훈련을 통해 준비된 평신도 지도자에게 맡겨야만 한다고 확신하는 그는 오히려 제자훈련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자훈련을 강조해도 사람들은 가정교회 시스템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 안에 소그룹 사역들의 이름도 다양하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저 좋다고 하는 세미나는 무조건 다

참석해 보는 목회자들도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소그룹 사역, 아니 프로그램이나 방법론, 시스템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이나 방법론, 시스템은 분명 목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방법론, 시스템은 금새 쓰러지고 맙니다. 그냥 남이 좋다니까 나도 해본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금새 낭패를 보고 말 겁니다. 소그룹 사역은 목회철학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을 세우는 목회에 집중하라

실제로 최상태 목사는 자신의 목회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란 단순히 제자훈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 모임부터 양육과 훈련,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재교육 등 화평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모든 사역을 포함한다.

"저의 한 주간 사역 스케줄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주일날 낮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면 곧바로 오후에는 일종의 순장반과 같은 시간인 가정교회 가장(총무)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사역반에 해당되는 지도자반 훈련이 있고, 그것을 마치면 바로 또 남자 제자반과 양육반 모임이 있습니다.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에는 양육반과 직장인을 위한 제자반, 그리고 신구약 성경공부반 등의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양육반, 부모역할반, 제자반, 중보기도학교가 있고, 목요일에는 전도폭발훈련,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가정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들 중에 신구약 성경공부반과 제자반 2개, 지도자반 1개, 그리고 가장(총무) 모임 등 총 5개 반을 직접 인도합니다."

화평교회가 얼마나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교회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화평교회는 주일 오후예배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에 사람을 세우는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주일 오후에 실시하는 사역들로는 양육반과 제자반, 지도자반, 그리고 가정교회 리더들인 가장(총무)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평일날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시간보다도 가정교회 리더들인 가장(총무)들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였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성도들과 솔직하게 나눴다. 그 결과 교회 전체의 의결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대신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설교 준비와 특별히 심방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목회에 중요한 일이지요. 저도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교회는 제가 주일날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나누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만큼은 제가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가령 지난 가을 화평교회에서는 주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신앙강좌라는 이름의 집회를 한 주간 진행했는데, 그러다보니 5시에 최 목사가 인도하는 제자반과 시간이 겹쳐서 강사접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부목사가 물었다고 한다. 그때 최 목사는 부목사에게 강사접대를 부탁하고, 자신은 제자반을 계속 인도했다고 한다.

최상태 목사는 자신의 목회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란 단순히 제자훈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 모임부터 양육과 훈련,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재교육 등 화평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모든 사역을 포함한다.

"강사에게 실례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제게는 제자훈련이 소중하고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생들을 놔두고 강사와 함께 식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는 나중에 양해를 구하면 되지만, 제자훈련은 양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하면 훈련의 체계와 원칙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훈련생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습니다."

최상태 목사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철학은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아야 한다

최 목사가 이처럼 목회의 관심을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화평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는 것이 최 목사의 목회철학이었다. 다시 말하면, 최 목사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화평교회를 개척한 것이다.

"저는 부목사 때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비슷한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는 학생선교단체에서 제작한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교재는 비록 지금의 제자훈련 교재가 아니었지만 그때 소그룹의 역동성과 사람을 세우는 목회의 중요성을 이미 맛보았지요. 그래서 1988년 원당에서 3명의 성도와 함께 화평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3명의 성도들을 잘 키우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요."

그런데 최 목사가 갖고 있는 확신과 달리,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

"3명을 데리고 개척했지만 그들과 함께 훈련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중 한 명이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남은 두 명 중 한 명이 자기는 더 이상 훈련을 못 받겠다며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목회였지만 현실은 참담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명 남은 성도를 대상으로 훈련을 계속할 수는 없었던 최 목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곱씹어 보았다.

"훈련도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훈련을 시작했어요."

최 목사는 "일반적으로 훈련을 하다가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훈련을 포기하는데, 그때는 훈련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루어 두고 전도를 한 후에 다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즉, 훈련을 성장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람을 세우는 훈련 목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변해서는 안되는 철학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성장이 안된다고 해서 철학을 바꾸는 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최 목사는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제자훈련 현장에서 훈련생들에게 전도를 매우 강조한다고 말한다. 즉, 평신도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게 될 사람이 영적 재생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훈련 과정에서 훈련생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 재생산의 능력이라 것이다.

그래서 최 목사는 모든 훈련을 마치고 가정교회 가장 혹은 총무로 파송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반드시 2년의 훈련기간 중에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훈련되어 파송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의 소그룹을 이끌다보니,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도에 민감하고 성도들 스스로 전도 중심

최상태 목사는 모든 훈련을 마치고 가정교회 가장 혹은 총무로 파송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반드시 2년의 훈련 기간 중에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훈련되어 파송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의 소그룹을 이끌다보니,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도에 민감하고 성도들 스스로 전도 중심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이다.

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이다.

"제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한들 성도들이 얼마나 따라줄까요? 하지만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에 민감하고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른 성도들도 그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준비된 리더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가시지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라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목회철학을 소유하라고 말하는 최상태 목사.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 제자훈련 목회철학에 대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일까?

"제자훈련이 너무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첫 훈련에 실패를 하니까 솔직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친구 목사가 CAL세미나 강의 테이프를 갖고 있다길래 그걸 빌려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훈련 목회에 대한 확신이 더 가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첫 번째 훈련은 실패했지만, 최 목사는 다시 훈련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자 그 중 7명을 선발하여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훈련을 실시한 지 3, 4년 정도 지날 무렵, 최 목사의 마음에 뭔가 모를 답답함이 느껴졌다.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CAL세미나 강의 테이프를 들어보면 옥한흠 목사님이 제자훈련 하면 사람들이 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제 훈련에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건지 답답했죠."

최 목사는 테이프로만 강의를 듣다보니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CAL세미나를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그 전부터 세미나를 직접 가보고 싶었는데, 부목사 시절에는 부목사라서 못 갔고, 막상 개척을 하고 나서는 이래저래 시간에 쫓기다보니 세미나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세미나에 가서 직접 보고 내 훈련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야 목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1994년에 열린 제20기 CAL세미나에 참석한 최상태 목사는 자신의 훈련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깨닫게 됐다. 특히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 현장과 다락방 소그룹을 직접 본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직접 현장을 보면서 자신의 사역과 비교해보니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하면서도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의 가정교회 현장을 참석자들에게 모두 오픈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가정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직접 보면 가정교회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CAL세미나를 통해 최 목사가 발견한 자신의 약점은 무엇일까? 최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 마디로 훈련생들과의 상호교통이 없는 일방적인 훈련이었던 겁니다. 저는 선생이고 훈련생들은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생들과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나 내면을 깊이 있게 터치해주는 것은 전혀 없이 그저 가르치는 데만 급급한 훈련을 했던 거지요. 또 훈련생들의 상황이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사람들을 이끌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게 훈련인줄로 착각한 겁니다."

최 목사는 제자훈련을 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인도자의 훈련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제대로 된 제자훈련은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훈련생들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인도자의 책임이라고 했다.

"제자훈련 인도자는 가르치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점검하고 체크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점검과 체크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제자의 자세로 살았는지를 점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점검할 길이 없습니다."

변화를 통해 훈련의 열매를 확인하라

그렇다면 화평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경험한 변화는 어떤 것일까? 최상태 목사는 먼저 삶 속에서 훈련생의 신앙인격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제자훈련 수료식 때 제자훈련을 통해 경험한 변화에 대해 간증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어머니학교와 부부성장학교 같은 훈련을 이미 받은 한 자매였는데, 그런 훈련을 받았어도 남편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가 맞추기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이 동네로 이사와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제자훈련을 받게 됐는데, 제자훈련을 받는 도중 어느 날 남편이 '당신 그 제자훈련 평생 받았으면 좋겠다' 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전 교회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화평교회에 와서 제자훈련 받으면서부터 남편에게 너무 잘하는 아내로 변했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크게 변한 걸 못 느끼겠는데 남편은 아내의 변화를 피부로 느낀 거지요."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재생산의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영적 재생산의 능력, 즉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세상의 학력이나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지식이나 능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훈련을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다들 그분이 제자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지요. 물론 큐티나 독후감과 같은 숙제는 제대로 못해 오셨어요. 하지만 제자훈련을 마칠 무렵, 그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자훈련을 가장 제대로 받으신 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 받는 동안 그분이 불신자였던 남편과 자식, 사위 등 온 가족을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훈련받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변화의 열매가 두드러지면서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 중에 자신은 이번에 제자훈련을 꼭 받아야 한다고 최 목사를 협박(?)하는 성도도 있었다. 어쨌든 그 후로 지금까지 화평교회는 훈련생이 부족해서 훈련을 못시키는 일은 없었다고 최 목사는 말한다. 그리고 지금은 최 목사가 굳이 제자훈련을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성도들 스스로 '제자훈련 안받으면 나만 손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로 담임목사인 자신이라고 했다. 우선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스타일도 바뀌었지만 그것이 몸에 배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도 바뀌었다고 했다.

"예전의 제 리더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었다면 지금은 열린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저의 문을 열어놓으려 합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이런 자세를 성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새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목양실을 교회 식당 바로 앞에 마련한 것이다. 그것도 통

유리로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도록 만들어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최 목사가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도록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담임목사가 목회를 준비하는 사무실인 목양실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했다는 것이다. 가령 주일 낮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마치면 성도들이 삼삼오오 목양실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화평교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최 목사가 목양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에도 어린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최 목사에게 사탕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온 성도들의 경우에는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담임목사님 사무실에 그렇게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은 그런 반응을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라

최상태 목사가 가정교회 사역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CAL 세미나를 다녀온 지 4년 뒤인 1998년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최 목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제자훈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난 다음부터 교회 안에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제가 그들이 가진 역량과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역을 맡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담임목사와 같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책임질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에게 단순히 소그룹을 인도하는 수준의 역할만 맡기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사역 현장을 제공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가정교회를 접하게 됐습니다."

최상태 목사는 가정교회를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가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100%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의 소그룹 사역을 보면,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가 있더라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책임지는 것은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는 목양적 책임까지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인 가장에게 일임했습니다. 즉, 가정교회 가장은 단순히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니라 한 가정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신의 가정교회 안에서 자신과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양육하여 제자훈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장들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가정교회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을 지원하는 일을 자신의 사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최 목사는 "우리 교회는 장로 되고 싶다는 사람은 없어도 가장 되고 싶다는 사람은 넘친다"고 했다. 그만큼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 가정교회 가장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태 목사는 교회의 모든 사역에 가장들을 앞장세운다고 한다. 그래야 성도들이 잘 따라오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두 차례 교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봄에는 가정교회별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사를 가지고, 가을에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전도집회를 여는데, 이때 모든 사역의 핵심에 가장들이 앞장섭니다. 기획부터 세부적인 진행까지 가장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맡기고, 교역자들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과 가장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담임목사가 앞에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아도 이미 교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잡혀 있어요. 가장들이 가정교회에서 분위기를 먼저 잡아놓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그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가정교회 사역은 최상태 목사가 볼 때 화평교회가 처한 목회적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소그룹 사역이었다. 그러나 가정교회가 모든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그룹 사역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담임목회자의 책임이다. 가정교회든, 다락방이든, 구역이든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을 가진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다. 그 소그룹 사역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을 준비하지 않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는 것이다. 훈련을 통해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역을 맡겨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담임목회자는 자신의 목회 현장에 가장 알맞은 소그룹 사역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최상태 목사는 이렇게 충고한다.

"목회자들이 소그룹 사역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의 생명은 사람에 있는데 무엇이 사람을 키우는 것인지 고민하고, 자기 교회에 알맞은 소그룹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거룩한 고민입니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런 의미에서 최상태 목사는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가장(총무)들을 지원하는 사역과 또 그런 사역을 앞으로 맡게 될 예비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담임목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가장(총무) 모임은 제가 제자훈련 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가장(총무)들과 교회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화평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은 거의 이 시간에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회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결의할 뿐이에요. 당회원들이 모두 가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 목사가 가장(총무)들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 최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가장과 총무들의 사역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신구약 성경공부반을 만들고 가장과 총무들이 이 시간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는 눈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이 시간은 제가 직접 인도하고요. 설교 역시 중요한 지원 사역 중 하나인데, 강해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가을에는 3, 4일 정도 시간을 내서 행복한 가정생활, 바람직한 예배 생활, 건강, 자녀교육, 성공적인 전도, 바람직한 이웃돕기,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신앙강좌를 오픈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장과 총무들이 가정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CAL세미나를 다녀온 뒤에 제자훈련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훈련받은 사람들에 대한 훈련 인정 여부

"이제까지의 소그룹 사역을 보면,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가 있더라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책임지는 것은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는 목양적 책임까지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인 가장에게 일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제자훈련에 한계를 느껴서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한 줄로 알아요. 하지만 그건 100% 오해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제 사역의 철학이자 기초이고, 가정교회 사역은 제가 발견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은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리더들을 세웠기 때문이고, 그렇게 건강한 리더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 문제가 됐었다. 그렇다고 그들의 훈련을 부정하고 새로 받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최 목사는 그래서 훈련 이후에도 평신도 지도자들을 계속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 대안으로 순장반을 강화하는 것과 여러 가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후속조치들을 기획했다. 그러자 이전에 훈련받았던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후에 훈련받은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최 목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전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후에 훈련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에게는 없는 좋은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후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전에 훈련받은 사람들을 선배라고 존중해주면서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과도기를 지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주일 오후에 진행한 순장반을 철저히 소그룹으로 진행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순장반에 참석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그 주에 진행할 성경공부 교재를 가장과 총무들끼리 먼저 나누게 했는데, 아무래도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다 보니 나누는 내용과 그 깊이가 일반 가정교회 모임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깊더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가장(총무)들끼리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섬기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다보니 가장과 순장들이 웬만한 일이 아니면 순장반을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일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순장반에서 다시 한 번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여기서 경험한 은혜를 가정교회에서 나누기 때문에 가정교회 모임 시간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최 목사의 증언이다.

리더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진다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목회에 전념하는 최상태 목사.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회가 너무 행복하고 쉽다고 말한다.

"사실 저는 목회가 참 쉽습니다. 올해로 21년째 화평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초창기를 빼고는 지금까지 제가 특별히 성도들 때문에 힘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겐 저와 똑같은 철학과 마음을 가진 200여명의 동역자(가장과 총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뻰질이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가장과 총무들이 알아서 문제를 진화합니다.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이 분위기에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정 못 견디겠으면 그냥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최 목사는 화평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한 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하루는 공인 중개사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평교회 담임목사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 화평교회 주지 목사님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저를 정말로 만나고 싶었다면서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근처에 좋은 교회 있냐고 물어보면 교회 안다니는 사람들도 '화평교회 가라' 고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웃의 소개로 오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보다도 최 목사로 하여금 화평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다. 바로 소그룹 사역의 열매들이다.

"저희 화평교회는 지금 83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교회 당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성도들 중 가정교회에 참석하는 성도의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도 일단 가정교회에 소속되기만 하면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5주 과정의 새가족반을 수료하지 않으면 가정교회에 소속될 수 없지만, 일단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가정교회에 소속되기만 하면 거의 교회에 잘 정착하고 몇 년 뒤에는 제자훈련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21년간 화평교회를 담임하면서 최상태 목사는 교회를 이전하여 새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평신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목회에 전념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최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제자훈련에 한계를 느껴서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한 줄로 알아요. 하지만 그건 100% 오해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제 사역의 철학이자 기초이고, 가정교회 사역은 제가 발견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은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리더들을 세웠기 때문이고, 그렇게 건강한 리더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제자훈련 목회자로 불러달라

최상태 목사는 자신에게도 한 가지 속상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한 건, 제가 아무리 제자훈련을 강조해도 사람들은 저를 자꾸만 가정교회 목회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어디에 강의를 가도 꼭 강사소개를 하면서 저를 가정교회 목회자로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합니다."

사실 최상태 목사는 현재 제자훈련 목회 동역자 네트워크인 일명 CAL-Net의 경기(북부)지역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자신을 오로지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만 말한다며 그것이 불만스럽다고 말한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누가 저를 가정교회 하는 목사라고 불러주는 것보다 CAL-Net 팀장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팀장이라는 직함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가진 목사라는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팀장이 아니더라도, 저를 제자훈련 하는 목사, 사람을 세우는 목회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정교회에 가는 것보다 제자훈련 하러 가는 시간이 더 즐겁고 기쁩니다."

자신을 가정교회 목회자가 아닌 제자훈련 목회자라고 불러달라는 최상태 목사. 그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회자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분명한 것은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원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최상태 목사와 화평교회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다. 최상태 목사와 같이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 교회는 분명 건강해진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소그룹 사역을 바꾸기 전에 먼저 당신의 목회철학을 다시 한 번 점검하라. 그리고 당신이 과연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헌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이 땅의 교회들마다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가득 세워져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박순종 목사〉

강석하 장로 — 받으면 또 받고 싶은 제자훈련의 매력

1993년부터 가정교회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강석하 장로. 평신도 지도자로서 변화에 따른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훈련을 받은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가끔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제자훈련 받았을 때를 생각한다.

"제자훈련을 시작 하면서 '훈련 기간 동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라던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사실 처음에는 끝까지 훈련 받을 자신이 없어 시작한 것을 후회했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훈련에 잘 적응하면서 변화되려 애쓰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 놀랐고, 또 훈련기간이 끝날 때쯤엔 아내가 저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훈련 받았던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다시 제자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원구 장로 — 일평생 뿌리내린 제자훈련 은혜의 감격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 라는 표어가 마음에 들어 1994년 화평교회를 등록하게 된 이원구 장로. 그는 제자훈련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다.

"만약 제가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도 신앙의 방황을 계속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핑계를 대며 주어진 상황을 합리화하기 바쁘겠지요. 인도하시던 담임목사님께서 자신의 실수담, 속내 등을 서슴없이 내어놓을 때에는 내 안의 고통과 아픔 등이 함께 치유되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 덕분에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일상의 삶과 그 무게들이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삽니다."

이경자 집사 — 제자훈련 숙제도 최상의 행복이 될 수 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남편과의 갈등이 없어지고 가정이 행복해졌다는 이경자 집사. 매주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생활과제를 하면서도 이 집사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

"제게 제자훈련은 한 주 한 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명확해지고, 겸손히 생활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알아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나태함으로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나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부담은 됐지만 과제물이 오히려 저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한번은 가족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제가 숙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눈치챘나 봐요. 쑥스러운 제 마음을 남편과 아이들이 웃음으로 격려해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박래백 장로 — 제자훈련 재수생이 작은 목자가 되다

1994년 가을, 화평교회에 등록한 후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사리 제자훈련을 수료했다는 박래백 장로. 그는 스스로에게 '제자훈련 재수생' 이라는 별명을 붙인다.

"20년이 넘도록 많은 신앙교육을 받아도 삶의 변화가 뚜렷이 없었지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부터 비로소 저의 신앙이 많이 성숙되고, 삶이 달라짐을 체험합니다."

그는 제자훈련이 자신의 신앙에 든든한 뿌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줬다고 말한다.

"어린아이는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아이가 자라 결혼해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듯이 저도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교회 식구들을 섬기면서 한 영혼을 향한 작은 목회자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박봉만 목사〉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의 감동을 "사랑의 40일" 캠페인에서 다시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관계 원칙
사랑의 40일 캠페인 설명회

"우리 주변에는 갈등과 이혼, 폭력, 편견, 학대, 분열, 대립이 늘 존재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세상 풍조와 맞서 사랑의 부활을 일으켜야만 한다. 사랑의 40일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꿈이다. 그리고 바로 당신에게서 그것이 시작될 수 있다."

_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저자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사랑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40일" 캠페인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당신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당신의 가정과 교회, 직장, 친구 관계에 새로운 깊이와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타락한 세상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랑의 40일" 캠페인에서 다루는 내용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하게 됩니다.

다루게 될 내용

1. 캠페인 개요
2. 사랑으로 가꾸는 삶이란?
3.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관계 원칙들
4. 캠페인 진행과 특별행사

사랑으로 가꾸는 삶 예수님께 배우는 관계 원칙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길 원하신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으며 그 관계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삶에서 보여 주신 관계 맺는 6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40일 동안 이 원칙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으로 관계 맺게 해준다.

· **톰 할러데이** 지음 | 양영선 옮김 | 13,000원

세미나 개요

일 시 : 12월 14일(월) 1시 ~ 4시 30분
장 소 : 사랑의교회
강 사 : 김명호 목사(국제제자훈련원 대표)
김건우 목사(국제제자훈련원 대표총무)
양승언 목사(40일 캠페인 디렉터)
참가대상 : 목회자, 신학생, 사모, 평신도 지도자
등록방법 : 국제제자훈련원 홈페이지(www.discipleN.com)에서 등록 후 입금
등 록 비 : 1만원 (캠페인 필독서인 『사랑으로 가꾸는 삶』와 강의안 제공)
입금계좌 : 우리은행 094-233045-13-101 사랑의교회
우체국 013383-01-003350 사랑의교회
주 최 : 국제제자훈련원

국제제자훈련원 www.discipleN.com